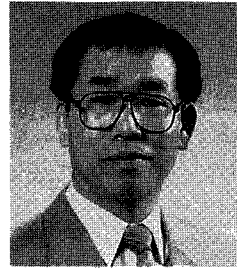


환율 급상승이 양계업에 미치는 영향



이 병 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1. IMF 한파와 한국축산

국제화시대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외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즉 국제사료곡물 시세의 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사료 원료 및 축산기자재 수입가격 변동 때문이다. 그후 UR타결과 함께 국내 시장개방이 단행되어 이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어 정해진 관세만으로 외국의 축산물이 자유롭게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가축의 경우 국제 곡물시세나 환율변동 그리고 외국 축산물의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어느정도 충격을 흡수하고 국내산업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1997년 10월부터 한국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그 이유야 어찌됐건 IMF의 구제금융과 경제 신탁통치를 초

래하였고 축산업계에도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환율변동의 급등은 외국의 원료 사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축산업계로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표1에서 '97년도 달러당 원화가치의 변동추이를 보면 '97년 1월의 861.3원에서 8월의 902.0원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표1. 달러대비 원화가치의 변동추이(1997년)

월	1달러당 원화	지수
1	861.3	100
2	863.9	100
3	897.1	104
4	892.1	104
5	891.8	104
6	888.1	103
7	892.0	104
8	902.0	105
9	914.8	106
10	965.1	112
11	1,163.8	135
12. 12	1,737.6	202
12. 17	1,405.9	163



△ 달러부족과 환율상승은 환차손에 의한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그후 9월 914.8원, 10월 965.1원, 11월 1,163.8원으로 올라가다가 12월 12일에는 1월의 2배를 넘는 1,737.6원까지 치솟았다. 12월 17일에는 다시 1,405.9원으로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97년 전반기에 비하면 엄청난 변동폭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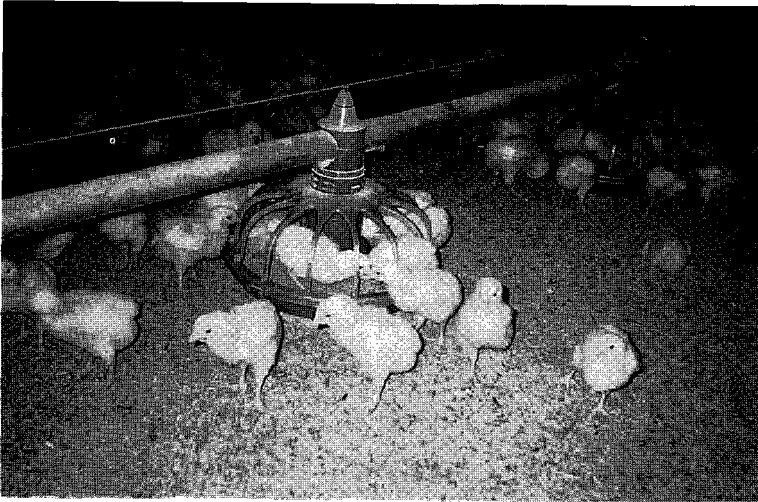
달러부족과 환율상승은 사료제조회사들에게 환차손에 의한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고 사료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료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다. 해외 곡물상들이 '97년 11월 초부터 유전스(외상구매)거래를 취소하고 사이트(대금 즉시결제)거래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은행들이 사료업체들에게 수입신용장 개설을 거부함으로써 사료원료의 구입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회사들은 원가상승(최고 52%)을 이유로 지난 12월 10일 사료값을 10% 인상한데 이어 회사에 따라 추가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양축농가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현금구매력이 없는 상당수 농가들이 사료를 못구해 방매로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농가들은 가축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자칫 축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육계 계열화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계열주체의 사료확보난과 자금회전 난항은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비 지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한파는 사료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이나 축산기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료업계의 불황이나 부도는 관련업계에도 바로 파급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원화에 대한 달러가치 상승은 독일의 마르크화나 네덜란드의 길드화 등 유럽화폐의 환율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축산기자재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원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생산된 축산물 가격도 상승해야 하는데, 불경기로 소비는 위축되고 또한 수입개방으로 값싼 수입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및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축종별 또는 규모별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곡물수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사료협회 등 곡물수입단체들이 12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무부 신용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단기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 6,269원이다. 사료원료의 75%가 수입사료라고 하면 수입사료비는 4,702원이 된다. 만약에 환율이 861원에서 1,000원으로 16.1% 오른다면 수입사료비는 4,702원에서 5,459원으로 757원 올라 결국 생산비가 6.9% 오르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를 때 생산비는 16.8%, 1,400원으로 오를 때 생산비는 26.7% 오르게 된다.

2. 환율폭등과 양계산업

양계부문의 생산비구성을 보면 육계의 경우 사료비가 56.9%, 초생추비가 20.3%를 차지하며 계란의 경우 사료비가 59.8%, 가축비가 20.6%를 차지하여 사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런데 사료원료의 75%가 수입품이므로 이 부분의 비용은 환율변동이나 국제곡물 수급사정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원종계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므로 초생추비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편의상 가축비나 곡물원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사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보기로 한다.

표2는 축협중앙회에서 산출한 '96년도 양계생산비를 토대로 환율의 변화가 생산비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환율의 변동은 '97년 1월의 861원을 기준으로하여 각각 1,000원(16.1% 상승), 1,200원(39.4% 상승), 1,400원(62.6% 상승)으로 가정하였다. '96년도의 생체 10kg당 육계생산비는 11,022원인데 이중 사료비

한편 계란 100개당 생산비는 6,461원인데 이중 수입사료비가 2,897원을 차지하며, 환율이 861원에서 1,000원으로 오를 때 계란생산비는 7.2% 오르게 된다. 또한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생산비는 17.7%, 1,400원으로 오르면 생산비는 28.1%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수입사료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실정에서 환율의 폭등은 생산비의 상승폭을 크게 해 농가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2. 환율변동에 따른 양계생산비 상승을 추정

항 목	생산비 (비용합계)	수입사료비 (75%가정)	환율(1달러당 원)		
			1,000	1,200	1,400
육계(생체10kg)	11,022원	4,702원	6.9%	16.8%	26.7%
계란(100개)	6,461원	2,897원	7.2%	17.7%	28.1%

주 : 1) 환율변동은 '97년 1월의 861원을 기준으로 함.

2) 생산비는 축협중앙회('95.10~'96.9), 1997에 의함.

참고로 육계의 예를 들어 환율상승이 국제경쟁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월간양계 '97년 11월호의 이성복씨 논문에 우리나라 육계생산비 평균을 11,022원이라고 했

을 때 국내 계열화 농가의 생산비는 7,520원, 미국의 생산비는 5,390원, 태국 5,860원, 필리핀 7,550원, 일본 9,65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미국, 태국, 필리핀은 수직계열화이며, 일본은 수평계열화 수치이다.

그러면 국내 육계생산농가의 생산비절감 목표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육계 생산비가 가장 낮으므로 5,390원으로 하되, 2004년까지 닭고기의 수입관세율이 20%(’97년 30.5%)로 떨어지므로 20% 관세를 붙이면 6,468원이 국내 농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비절감 목표치가 된다.

표3에서 국내 일반농가나 계열화 농가의 생산비가 환율상승에 따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생산비절감 목표치 6,468원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얼마나 절감해야 하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농가의 생산비는 국내 계열화 농가보다 무려 47%나 높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1.7배~2.2배나 높다. 계열화 농가의 경우는 환율변동이 없을 때 14.0% 정도 생산비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환율이 1,000원으로 오르면 생산비 절감폭은 19.5%로 커져야 하고, 1,200원 일때는 26.4%, 1,400원 일때는 32.1%나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표3. 환율변동에 따른 생산비절감 목표(단위 : 생체 10kg)

생산비	기 준	환율		
		1,000원	1,200원	1,400원
평 균	11,022원	11,779	12,875	13,965
계열업체	7,520원	8,036	8,784	9,528
절감목표	14.0%	19.5	26.4	32.1

주) 목표치는 미국 생산비(5,390원)에 2004년의 관세율 20%분을 더한 6,468원으로 가정함.

그럼 과연 생산비절감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국내 양계농가들이 계열화나 규모화를 추구하여 일차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나아가서 병아리 육성율이나 종란생산성 등 기술수준을 높여 추가로 생산비를 절감한다고 할 때 14~15%까지는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율이 1,200원이나 1,400원 수준에서 고착될 때 생산비를 26~32%까지 낮추기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양계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모두 마찬가지로이지만 IMF에 의해 국가의 거시경제지표가 통제되고 환율과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한 양계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국가경제가 안정되고 다시 활력을 찾게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동안 농가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우선 정부나 축협, 계열주체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시킬 특단의 조치를 취해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차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 시련을 통해 많은 양축농가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즉 경쟁력 없는 농가의 탈락정도가 아닐 것이다. 자칫 축산업계의 연쇄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가도 경영내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로모색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양계**